

일상 속 삶과 상처의 풍경

윤대녕·김소진·이순원의 작품을 읽고

전승주
문학평론가

윤대녕의 두번째 장편 《추억의 아주 먼 곳》과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은, 동일한 시기를 겪고 성장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가 현실의 부정성을 동일하게 작품 형성의 밑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매우 다른 문학적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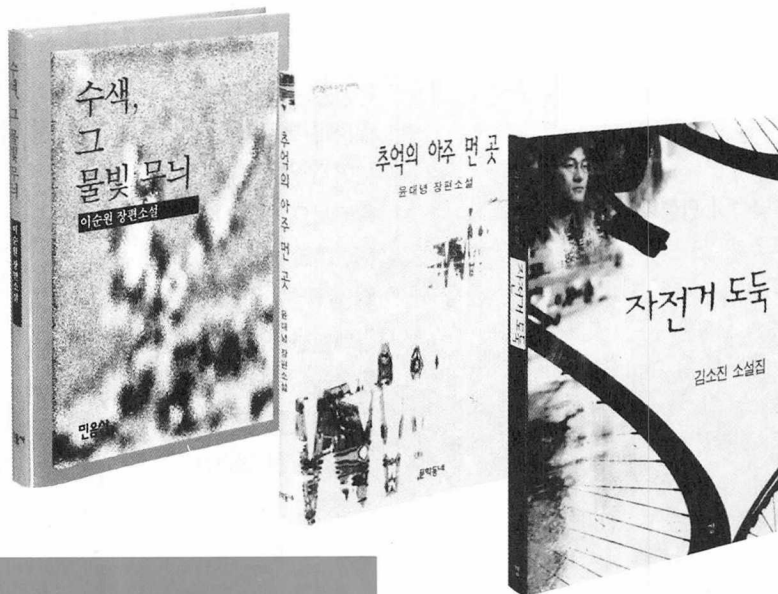
존재의 근원찾기

《추억의 아주 먼 곳》에서 윤대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의 작품들에서 그가 줄기차게 시도해 왔던 존재의 근원찾기이다. 여기에서는 근원을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세 여자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설정하고 있다. 어느 날 실종되어버린 ‘권은화’라는 옛 애인과의 관계, 실종된 동생을 찾아나선 언니 ‘문희’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애인인 ‘유란’과의 관계가 그것이다.

은화는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의 소녀가 성장한 모습이지만, 혼탁한 현실적 삶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실종’된다. 은화와 헤어진 이후 ‘김동고’는 현실적 삶을 영위하는 유란을 사귈다. 그런데 유란은 김동고의 친구이자 이복오빠인 ‘형규’에게 강간당한 아픈 과거를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질 것을 선언한다. 돌연한 그녀의 결별 선언이 김동고에게 충격적이지 않은 것은 잊고 있었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여인인 은화의 추억이 언니 문희의 출현이라는 방식으로 현실 속의 나의 삶을 뒤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은화의 세상에의 복귀라고도 할 수 있는 언니 문희의 출현은 작가가 세상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맺어나가려 하는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유란이 ‘결벽증’이라고 말하는 동고의 폐쇄적인 자의식이 세상에 대한 문을 열어젖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그의 마음 속 깊이에 들어있는 근원에는 그리움이 너무나 강렬하며, 횡단보도 저쪽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대녕은 아직도 시간의 이쪽과 저쪽을 왕복하면서 유년의 이미지를 찾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발견하고자 하는 근원이란 어쩌면 그가 그 유년의 공간을 벗어나



윤대녕의 《추억의 아주 먼 곳》은 그가 줄기차게 시도해왔던 존재의 근원찾기이다.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은 90년대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이순원의 《수색, 그 물빛무늬》는 일상의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당당함의 무늬로 그린다.

서, 횡단보도 이쪽으로 돌아와 현실의 삶을 응시하는 순간 발견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90년대 삶의 상처

등단작 《취잡기》에서 《고아편 뽕떡어멈》에까지 김소진은, 아버지의 현실인 70년대적 현실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것을 원체험으로 성장한 아들 ‘민홍’이 90년대적 현실에 어떻게 맞서 나가는가에 초점을 두어왔다. 네번째 작품집인 《자전거 도둑》에서 그는 소설적 관심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유년시절의 기억을 통해 아버지의 삶의 한 자락과, 이루어지기 힘든 인간적 삶을 지향하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낸 〈첫 눈〉, 아버지의 삶을 통해 현재의 나의 삶을 비추어보는 〈아버지의 자리〉 〈원색생물학습도감〉, ‘기태’라는 중간관리자가 제3세계 노동자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달개비꽃〉, 현대사회의 인간소외와

자본주의적 일상의 폭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상징으로서 마라토너를 등장시키지만 결국 그것은 거대한 자본주의적 일상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린 〈마라토너〉, 번역 원고의 출판을 거절하는 여사장, 점점 운동권으로부터 멀어져 이제는 자본주의에 완벽하게 적응한 선배, 일상의 지겨움을 외치는 아내와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꼭 짜인 90년대적 질서로부터 ‘경북여관’으로 상징되는 80년대적 공간을 떠올리고, 그 속의 삶이 단지 세상과의 불화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진정 세상과 화해하기 위한 길임을 말하는 〈경북여관에서 꿈꾸기〉 등이 그것이다.

그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일상과 기억은 사소하지만 실상은 현실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특히 이러한 일상이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의 개인적 삶에 관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석조네 사람들’로 표현되는 70년대의 일상적 민중의 삶을 굳건한 바탕으로, 《취잡기》의 아들 ‘민홍’ 세대의 일상, 즉 이미 엄청난 괴물처럼 되어버린 90년대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상처를 그려냄으로써 일상의 기록을 뛰어넘는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그 시절의 풍경을 드러내는 것이 단지 암울한 현실의 삶을 감싸고 치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인으로서의 관찰에 머물고 있는 점은, 어설픈 현실의 고발과 개선을 피하지 않는 미덕을 지닐 수 있지만 자칫하면 관찰 자체

로만 굳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희상 속의 무늬

이순원의 《수색, 그 물빛 무늬》는 연작의 형식을 빌려 독특한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버지의 작은 마누라인 ‘수호엄마’와 그녀를 받아들이는 어머니, 그리고 수호엄마로 친엄마로 알고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인 과거, 그러한 과거를 회상하며 일상적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소설 속의 세계,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는 작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세 차원이 서로 얽히면서 연작이 이어지고 있다.

‘수색’이란 일상적 삶의 단조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상이기도 하다. 작품을 지배하는 마음 속의 무늬는 이러한 삶이 빚어내는 내면풍경이다. 이를 소설속에서는 ‘서자의식’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서자의식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움과 일종의 죄의식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의 복합적 양상으로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당당함’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작은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파행적 삶의 질서를 안정적 질서 속에 자리잡게 하는 어머니의 현명함과 당당함이며, 두 여자와 살며 나의 가슴에 ‘물빛 무늬’를 맺히게 만든 아버지의 삶이 나에게 가한 ‘서자의식’을 극복해나가는 나의 삶의 당당함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거부하던 수술을 받도록 나만이 설득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당당함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당당함은 ‘무늬’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무늬는 가볍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늬의 근원을 이루는 과거가 오직 회상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에 그어놓은 선으로 표현된 현재 허용된 삶을 벗어나는 일, 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그의 또 다른 욕망, 즉 일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

《추억의 아주 먼 곳》 문학동네/A5변형/120면/5500원

《자전거도둑》 강/A5신/272면/6000원

《수색, 그 물빛무늬》 민음사/A5변형/264면/6000원